

2020 사회복지학개론(지방직) 시험문제 가답안 및 총평

2019 사회복지학개론(지방직) - 가답안										
B형	1	2	3	4	5	6	7	8	9	10
	③	①	③	③	④	②	③	①	④	③
	11	12	13	14	15	16	17	18	19	20
	①	②	①	④	③	②	④	④	④	④

2020년 지방직 시험(6.13.) 사회복지학개론 총평

제공 : 김형준 교수(공단기 사회복지학 교수)

1) 영역별 분석

영역	정책	지역복지	실천기술 / 실천	실천 / 정책 / 지역복지	실천
문항 수	7	1	2	1	4
영역	법령	실천(여성복지)	행정 / 조사	정책(노인복지)	총
문항 수	2	1	1	1	20

2) 문항곤란도¹⁾ 분석

문항곤란도	상	중	하
문항 수 (20문항)	2	6	12

3) 출제 상 특이사항

- (1) 2020년 지방직 시험이 끝났다. 이번 지방직 문제는 코로나-19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을 감안해서인지, 모든 과목이 쉽게 출제된 듯하다. 사회복지학개론의 문항곤란도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. 문항곤란도가 상(上)에 해당하는 문제가 많지 않았으며, 지방직의 기출경향에서 벗어난 문제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원점수상 85점~90점 정도 획득하였다면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.
- (2) 기출문제에서 특이한 사항은 여성복지실천에 해당하는 ‘성인지적 관점’이 출제되었으며, 6번 문제(B형/D형,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사회복지시설)의 경우 이의제기를 할

1) 편의 상 [개개 문항의 어려운 정도]로 판단하여 [상]은 매우 어려움, [하]는 매우 쉬움으로 표기하고자 한다. 문항 곤란도는 [사복단기] 김형준 사회복지학개론 교수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을 참고하길 바란다.

수 있을 만큼 문제해석에 대한 모호성이 존재한 문제도 있었다. 오랜만에 등장한 문제로서는 브래드쇼의 욕구문제, 직접실천과 간접실천의 구분 문제가 그 것이며, 지역사회의 기능(워렌) 연결문제는 이전의 기출문제 유형을 보다 더 응용한 문제이다. 마지막으로 매년 출제되던 사회복지조사 영역의 조사설계 문제들이 출제되지 않은 점이다. 사례문제는 ‘명료화’ 기술의 사례문제가 출제되었다.

4) 향후 학습전략

- (1) 2020 지방직 시험 문제를 기초로 한 향후 학습전략은 3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.
 - ① 첫째, 언제나 시험문제는 어렵게 출제될 수 있다. 이번 2020 지방직 시험처럼 항상 쉽게 출제되는 것은 아니다. 그것은 이전의 시험문제들을 보면 알 수 있다. 출제경향의 비(非)예측성 측면에서 고려할 때, 기본이론(심화이론) 과정부터 차근차근 학습을 해야 하며, 단지 핵심과 기출만을 고집한다면, 고득점이 어려울 수 있다.
 - ② 둘째, 문제풀이 과정에서 다소 지엽적인 문제도 풀어볼 필요가 있다. 성인지적 관점의 문제, 워렌의 지역사회 기능비교의 문제, 정책문제에서 지문에 나온 독점자본이론과 국가중심이론 등 생소하고 지엽적인 내용이 출제되어 이러한 용어들에 노출될 필요가 있다.
 - ③ 셋째, 정상적인 커리큘럼에 따라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많은 수험생들이 공통과목에 치중하다보니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핵심이론과 기출문제만 보고 시험장에 가는 성향이 많다. 시험이 쉬우면 똑같이 유리하지만, 어렵게 출제되면 낭패를 볼 수 있다.
- (2) 결론적으로 이론학습부터 탄탄하게 해 나가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의 지향은 향후 ‘어려울 것’으로 예상되는 사회복지학개론의 시험에서 고득점의 지름길이 된다.
- (3) 끝으로 부디 다가오는 국가직 공무원 시험(7.11.)에서 넉넉한 점수로 필기시험에 합격하시길 기원하며, [공단기 사회복지직 면접코칭반]에서 만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.

코로나-19 정국에서 건강 잘 유지하면서
수험생 여러분의 공직자 꿈이 속히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...

사회복지학 박사
[공단기_사복단기] 김형준 교수 드림